

‘마른’, ‘-건마른’, ‘컨마른’에 대하여

박 용 찬*

I. 머리말

본고는 15세기 국어의 ‘마른’, ‘-건마른’, ‘컨마른’이라는 세 형태가 어떠한 형태 통합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고 더불어 이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건마른’과 더불어 ‘-지마는’의 형성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 ‘-디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마른’, ‘-건마른’, ‘컨마른’은 지금까지 전면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단지 중세국어 개설서나 보조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왔을 뿐이다.

‘마른’은 문법범주상의 성격에 관해 주로 논의되어 왔는데 때로는 보조사로, 때로는 ‘마른’을 위한 새로운 문법범주가 설정되기도 했다. 전자는 개설서류나 보조사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견해로 고영근(1987)과 김송원(1988)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김송원(1988)과 김진형(1995)은 ‘-리오마른’처럼 ‘마른’이 어말어미와 굳어진 하나의 연결어미로 볼 수도 있다고 보았다. 후자는 허용(1975)와 허용(1992)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허용(1975: 365)는

* 박사과정

‘마론’을 ‘컨마론’과 함께 “하나의 완결된 월에 붙어서, 두 월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별다른 뜻 없이 마디를 연결해 주는 토씨”라는 ‘연결 토씨’의 하나인 ‘마디 연결 토씨’를 새로이 설정하였고 허웅(1992)에서도 이 두 가지 외에 ‘커니와’를 추가하여 ‘특수 토씨’라는 문법범주를 새로이 설정하였다.

반면 ‘-건마론’은 거의 모든 논저에서 불구법(양보법)의 연결어미로 처리하여 문법범주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하다.

‘마론’, ‘-건마론’, ‘컨마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문법범주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결과, 이들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컨마론’에 대한 논의는 허웅(1975)와 허웅(1992)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마론’, ‘-건마론’, ‘컨마론’은 얼핏 보더라도 형태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들 세 형태 사이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형태 통합 제약과 의미 기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 절에서는 ‘마론’, ‘-건마론’, ‘컨마론’의 출현 환경(특히 형태 통합 제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마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마론’에 대해 허웅(1975: 365)은 “완결된 월에 붙어서, 뒤집는 뜻을 나타내면서 월을 연결해 주는” 토씨라 하여 ‘마론’이 종결어미 뒤에 출현한다고 보고 있다.

(1) 가. 쇼히며 주이 닐 갑스을 뜨디 (업스리오마론) 오식 외 만흔 쯤이 뜨거우시고 터럭 만흔 히른 적스오니 (상원권선문)

나. 華嚴性海 곧흔 언데 正位 (아니리오마론) 十住入 처섭과 妙覺 乃終에 즈조 記別을 들즈보니 니르산 淸淨心과 니르산 殊勝境界 언데 업스리오 (월석13, 59a)

다. 阿難아 이 사르문 夢中에 언데 靜히며 뛰며 열며 다드며 通히며 마고물 (스랑히리오마론) 그 얼구리 비록 지나 들는 性은 어듭디 아니흐니라(阿難아 是人은 夢中時에 豈憶靜搖開閉通塞히리오마론 其形이 雖寂흐나 聞性은 不昏흐니라 (능엄 4, 130a) (능엄 4, 130b)

라. 또 므스글 求하야 못 得하며 므스글 ㅎ고져 ㅎ야 못 (일우리오마른) 後主
 되셔 널오더 成都에 썩나모 八百株와 사오나은 반 열 닷스 이리미 잇느니
 (亦何求不得이며 何欲不遂 | 리오마른 乃與後主로 言호더 成都에 有桑八
 白株와 薄田十五頃하니 (내훈 3, 50b)) (내훈 3, 52a)

(2) 가. 華嚴性海 곧하닌 엇데 正位 {아니료마른} 十住入 처삼과 妙覺 내종애 즈
 조 記別을 듣즈오시니 니르산 淸淨心과 니르산 殊勝境界 엇데 업스리오
 (若華嚴性海는 豈非正位 리오마른 而十住之初와 妙覺之終애 屢聞記別하
 시니 如所謂淸淨心과 所謂殊勝境界者 | 曷嘗無哉리오 (법화 3, 54b)) (법
 화 3, 55b)

나. 나를 소교려 ㅎ살때사 므스 이룰 {몰하시료마른} 큰 慈悲心으로 나를 어엿
 비 너기샤 내 그에 설본 이룰 아니하시닷다 (월석 4, 25a)

(3) 妾은 엇데 王의 得寵하요물 ㅎ오샤 코자 {아니하리잇고마른} 妾은 드로니 지
 비 거지블 여러홀 두든 사르미 能을 보는다 호니(妾은 豈不欲檀王之寵愛哉
리잇고마른 妾은 閨堂上兼女는 所以觀人能也 | 라호니 (내훈 2, 18b) (내훈
 2, 20b)

그런데 '마른'은 종결어미 가운데에서도 (1)의 예처럼 설명 의문의 '-리오'
 다음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리오'는 선어말어미 '-리-'에 의문범 어미 '-오'가
 연결된 것이다. '-리오'는 '-료'로 축약될 수 있는데 '마른'은 (2)의 예처럼 '-료'
 뒤에서도 나타난다. (2가)의 '-료마른'은 《법화경언해》의 예로서 《월인석보》
 의 대응 부분인 (1나)의 '-리오마른'과 대응될 뿐 아니라 구결문의 '-리오마른'과
 도 대응된다. (3)의 예는 '-리오'의 'ㅎ쇼서체'에 해당하는 '-리잇고'에도 '마른'이
 통합될 수 있음을 보인다.

(4) 가. 어의 나흔 현 죄적삼 니브니 劫火를 몇마 {디내야노마른} 사만 이 곁하도
 다(著箇纏生破布衫하니 氣經劫火하야노마른 長如此하도다) (남명上, 31a)

나. 몇 디위를 江風이 여러 날 {닐어노마른} 고기 낚는 비 담는다 듣디 몰호
 라(幾度江風이 連日起오마른 未聞沈却釣魚船호라) (남명上, 40b)

다. 노니는 아드론 몇마 쯤이 고해 불어든 {듣거노마른} 낸즈시 本來스 므스
 몰 일허브리돏다(遊子는 幾聞香撲鼻오마른 等閑히 失却本來心이로다) (남
 명下, 34a)

라. 촌 것 슬허 너기고 더운 것 드샤 머구믈 그만 더만 {하야노마른} 또 혼 사
 르미 나 雲門의 胡餅을 아느너 모르느너(嫌冷愛熱하야 喫却多少了也오마

로 還有一人이 識得雲門의 胡餅也아 未아) (금삼 3, 51b~52a)

설명 의문의 '-니오' 다음에도 '마론'이 통합될 수 있다. (4)는 '-니오'의 축약 형인 '-뇨'에 '마론'이 통합되어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예들은 《남명집 언해》와 《금강경삼가해》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이들 문헌은 '컨마론'에 있어서 기타 문헌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¹⁾ '마론'에 경우에도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뇨'의 원래 형과 '호쇼셔'체인 '-니오'와 '-니잇고'에 통합되는 '마론'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5) 가. 엇디 教 니피사미 時를 토티 (아니호시료마론) 노픈 會에 足히 賢實호미 업스시니(豈非教被乘時시료마론 無足賢其高會시니) (법화序, 13a~b)

나. 導師 | 慈悲로 濟度호사문 몇마 苦로 외며 {브즈런키시뇨마론} 愛河에 陷간 낫다가 도로 腫는다(導師 | 悲濟는 幾辛動고마론 愛河에 暫出호야 還沈沒호는다) (남명下, 31a)

'마론'이 통합하는 설명 의문의 '-리오(료)'나 '-니오(뇨)'에 주체 높임의 선어 말어미 '-시-'가 통합하는 데는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드물기는 하지만 '마론'은 감탄의 종결어미 다음에도 통합된다.²⁾ '마론'이 설명 의문 어미 뒤에 쉽게 출현하는데 이 설명 의문은 수사 의문으로 화자의 의도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탄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어 '마론'과의 통합이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³⁾

(6) 가. 福德이 分明호며 果와 因과 어듭디 (아니호도다마론) 能히 四句偈를 披면 알피서 더오미 萬倍호 功이리라(福德이 分明호며 果因이 不昧로다마론 能宣四句之偈호면 勝前萬倍之功이리라) (금삼 2, 72b)

나. 오직 世尊이 이에 와 滅度호시니 우리 나라해서 供養호습디비 그되내 又 비사 {오도다마론} 舍利사 물 어드리라 (석상 23, 53b)

1) 이에 대해서는 후술.

2) 안병희·이광호(1990)은 '-도다'를 감동법의 선어말어미 '-도'와 설명법 어미 '-다'가 결합한 감탄법 어미로 보고 있다.

3) 감탄 혹은 화자의 의도나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종결어미 뒤에 '마론'이 출현하는 예는 향가에서도 발견된다.(본디 내해다마론은(本矣吾下是如於隴) <처용가>) 김완진(1980:

94) 참조.

결국 '마른'은 설명 의문의 종결어미 뒤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간혹 '-도다'와 같은 감탄의 종결어미에 나타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예는 특기할 만하다.

(7) 가. 니르샤디 恩惠샤 {모리리어마른} 네 가짓 受苦를 위하야 ㅎ노라 ㅎ시고
(석상 3, 35)

나. 時節 거리츄메 敢히 주구물 {앗기러마른} 寂寞하야 ㅈ흔 므스물 놀라노
라 (두초 10, 47a)

(7가)는 설명 의문의 '-료'에 대응하는 판정 의문의 '-리에'에 '마른'이 통합되어 있다. '마른'이 판정 의문에 통합된 예는 거의 없어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판정 의문의 어미를 취하긴 했으나 수사 의문으로 기능한다고 보아 이러한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7나)의 예도 판정 의문의 종결어미 '-으리여(으려)'에 '마른'이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 예이다. 그러나 '-런마른'의 오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건마른'은 15세기 국어에서 '-거/어늘', '-거/어니와' 등과 함께 불연속 형태에 속한다. 항상 '-나마른'에 '-거/어/나'가 통합된 형태로만 쓰이는 것이다. '-건마른'이 통합된 대표적인 예 몇 개만 들면 다음과 같다.

(8) 가. 엇데어노 ㅎ란디 如來 그지업슨 智慧와 力과 無所畏와 諸法藏을 두어 能히 一切 衆生에게 大乘法을 {주건마른} 오직 다 能히 受티 몬ㅎ느니라 (월석 12, 49b~50a)

가'. 엇데어노 如來 | 그지업슨 智慧와 力과 無所畏와 諸法藏을 두어 能히 一切 衆生을 大乘法을 {주건마른} 오직 다 能히 受티 몬ㅎ느니라(何以故 오 如來 | 有無量智慧와 力과 無所畏와 諸法之藏하야 能與一切衆生大乘之法건마른 但不盡能受ㅎ느니라 (법화 2, 101a~b) (법화 2, 102a)

나. 바리 ㅈ리는 ㅈ {거출언마른} 慈悲心으로 구지돔 모르시니 수플에 나느 부데 {거출언마른} 恭敬心으로 期約을 니즈니 (월천上, 77)

다. 本來入 因을 조차 보건댄 ㅎ 巾의 지은 {거시언마른} 그 셋게 호민 므츠 매 일우디 몬ㅎ리라(循願本因컨댄 一巾所造 | 언마른 令其雜亂호민 終不得成ㅎ리니 (능엄 5, 20b) (능엄 5, 21a)

라. 集因을 몰라 거츠리 자바 道 사므란디 集을 迷타 {홍디언마른} 오직 더

迷惑흔 므스매 福行을 해여 集因을 삼디 아니하고 옮겨다가 道를 사물씨
集을 迷타 일흠지디 몬흐느니 苦를 해여 道 삼는 사르미 苦를 자바 道 사
몸과 곁디 아니홀씨 苦를 迷타 일흠지흐니라 (월석 11, 121a~b)

‘-건마론’에 통합하는 서술어에는 통사범주(품사)상의 제약의 없다. 동사, 형용사, 계사 등이 다 가능하다. (8가)는 동사, (8나)는 형용사, (8다)는 계사에 통합된 예이다. (8라)의 ‘흠디언마론’의 ‘디’는 의존명사 ‘딤’에 계사가 축약된 것이기 때문에 (8다)와 같다.(허웅 1975: 574)

‘-건마론’에 통합 가능한 선어말어미로는 추측법의 ‘-리-’, 주체 높임법의 ‘-시-’, 객체 높임법의 ‘-습-’ 등이 있다. ‘-시-’가 통합될 때는 ‘-건마론’ 사이에 끼어들어 가 불연속 형태를 이룬다. 드물긴 하지만 ‘-시-’가 ‘-건마론’에 앞설 수도 있다.

- (9) 가. 耶輸이 (올어신마론) 帝釋은 뜰 달아 太子사 마리를 塔에 7초스넵니 (월천 1, 56)
나. 萬物을 맛굴므샤 양즈 나토샤미 물곤 물 미릿 돌 (곧거신마론) 體는 正尊座 보빛 蓮臺에 두러워 겨시니라 (삼단, 11a)
다. 부텨 나히 (닐혼아호비어신마론) 여드니라 호몬 큰 數를 자바 니르니라 (금삼 1, 29a)
라. 普門으로 나토아 뵈샤미 妙音에서 {나스지건마론} 實엔 두 聖人이 혼 道理샤 서르 始作과 므츨래 드외실 썩르미라 (석상 21, 20b)

‘-건마론’에 ‘-리-’가 통합될 때는 ‘-리언마론’/-런마론’처럼 나타난다.

- (10) 가. 아릿 業엿 緣이 모던 報에 {떠러디리언마론} 이제 사르미 놀아이 너길식 罪 곧 스러디고 諸佛을 供養흐스오며(宿業緣이 隨惡報 | 언마론) 후에 人賤而罪即消흐고 供諸佛흐며 (금삼 3, 63a~b)
가. 거부비 나못 굶글 어드면 어루 즈모물 (건나런마론) 그러나 그 남기 須미를 흘러 값도라 三千年에샤 혼 번 서르 맛나느니라 흐시니라(龜 | 得水孔흐면 可濟沈溺이언마론 然이나 其水 | 流요須미흐야 三千年에샤 乃一相值라흐시니라 (법화 7, 138a)) (법화 7, 138a~b)
나. 곧 이 입 여를 고디 {업스런마론} 그러나 또 衆生의 日用에 여회디 아니흐니라 (直是無開口處 | 언마론 然亦不離衆生日用흐니라) (금삼 4, 36b)
다. 듣디 아니흐야 講흐야니와 나는 어린 그렛 {무리언마론} 아릿 생에 저근 因緣

이 이실시 華嚴入 疎를 퍼 더드며 값간 그들 보고 疎主 보아 비호디 아니
 하야신 제 묻져 두 버늘 講호니 (원序, 74b)

그런데 '-시-'와 '-리-'가 동시에 '-건마론'에 통합될 때는 (11)의 예처럼 '-시-'가 '-리-'보다 앞선다.

(11) 金輪王이 드외샤 四天下를 {ㄱ슴아르시런마론} 늘그니 病호니 주근 사들
 보시고 世間 슬히 니기샤 出家호샤 道理 닷ㄱ샤 六年 苦行호샤 正覺을 일
 우샤 (석상 6, 17b)

이 밖에 드물기는 하지만 '-건마론'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습-'이 직접
 통합하거나 '-리-'와 함께 통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12) 가. 아래 즈조 {듣즈반마론} 즉자히 도로 니저 ㄱ불 쑤니니(석상 6, 11a)
 나. 朝廷에 나샤가면 머릿터럭마니나 社稷을 {돕스오련마론} 열구리 이제 이
 곁호니 나샤가거나 물러오거나 호물 길 너 든노매 브리과라(두초 6, 53a)

(12가)의 '듣즈반마론'은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줍-'이 '-건마론'에 직접
 통합한 것이고 (12나)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습-'이 '-리-'와 함께 '-건마
 론'에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두시언해》에 한정되어 '-간마론'과 같은 특이한 용례가 출현한다.
 '-간마론'은 '-거-오-ㄴ마론' 정도로 분석될 듯 싶는데⁴⁾ 여기에 정말로 인칭 활
 용이나 의도법의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오/우'가 개재되어 있는 것인지 현재
 로선 단언하기 힘들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시-'가 아닌 다른 선어
 말어미가 '-거/어-'와 '-ㄴ마론' 사이에 끼어들 수 있으므로 '-건마론'이 아닌 '-
 ㄴ마론'을 연결어미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⁵⁾

4) 허웅(1975: 800-4)은 '-간마론'을 1인칭과 호응하는 '-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
 다. 고영근(1981: 35)은 '-가니'를 종결어미의 '-과라'에 대응하는 접속어미로서 '-오/우'
 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간마론'도 의도법의 선어말어미가 개재된 형태라 보
 고 있는 듯하다. 즉, '-간마론'의 '-오/우'가 두보(杜甫) 자신인 1인칭과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5) 리의도(1990: 74)은 16세기 국어에서 '-런마론'에 '-오-'를 앞세우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바들디면 닷 량을 {바도런마론} 고든 값슨 녀 량이니 은을 가져오면 곧 그계라 (노변下,
 29b~30a))

- (13) 가. 보미 오나돈 懷抱 僻물 오래 ㅎ고져 {너기간마론} 늘겨 가매 즈올아이
아논 사르미 ㄴ출 보미 드므도다 (두초 10, 46b)
나. 눈섭 ㄴ근 盜賊이 오히려 ㅅ에 어즈러우니 靑眼으로 {보간마론} 오직
길히 窮迫ㅎ애라 (두초 8, 61a)
다. 長常 明主스 德을 감습고져 {스랑칸마론} 病ㅎ야 누어쇼매 ㅅ노 폰 ㄱ
술히 드외도다 (두초 10, 37b)
라. 平生애 녀시 아닌가 {저칸마론} 길히 머리 可히 測量티 물ㅎ리로다 (두
초 11, 51b)

이제부터는 '컨마론'의 출현 환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컨마론'은 연결어
미 바로 뒤에 나타나는데 《남명집언해》와 《금강경삼가해》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을 보인다. '컨마론'에 앞서는 연결어미로는 '-으나, -오니, -거/어늘, -올던
댄, -거/어니와, -어도' 등이 있다. 이 '컨마론'은 구결문의 '爭奈(乃)'에 대응하
는 자리에 나타난다.

- (14) 가. 定이라 니르고져 {ㅎ나 컨마론} 비취요미 어줄티 아니ㅎ고 慧라 니르고
져 {ㅎ나 컨마론} 괴외ㅎ야 뭐디 아니ㅎ니 方과 모과를 一定티 어려울시 아
라우히 悠悠ㅎ야 어들 고디 업다 ㅎ시니라 (남명上, 45a~b)
나. 衣珠 | 값 업스니 비록 {이시나 컨마론} 아득히 醉ㅎ야 췌디 아니ㅎ는다
(衣珠 | 無價ㅎ니 雖然在나 爭奈昏昏醉未醒ㅎ는다) (남명下, 44b)
다. 다르디 아니타 니르고져 {ㅎ나 컨마론} 다름며 ㅎ나히 아니라 니르고져
{ㅎ나 컨마론} ㅎ니히오(欲言非異나 爭奈異며 欲言非-이나 爭奈-오)
(금삼 5, 20b)
라. 悲로 舍生을 教化ㅎ샤미 곧 업디 (아니ㅎ시나 컨마론) 能과 所애 반독
ㅎ거니와 智慧 | 眞際에 마자샤 平等ㅎ야 노푼며 ㄴ가오미 업스리라(悲化
舍生이 卽不無 | 나 爭乃能所 | 歷然커니와 智冥眞際ㅎ야샤 平等無有高下
ㅎ리라) (금삼 2, 13a)
- (15) 발 아래라 호몬 잇논 디 머디 {아니홀시나 컨마론} 아디 몰다 호몬 罪性이
本來 空흔 고엿 妙旨를 아디 몰홀시라 (남명下, 60b)
- (16) 가. 아츠미 못드록 넷 길헤 사르물 불러 녀라 {커늘 컨마론} 모르논 무리 荒
草를 스랑ㅎ는다(終朝古路에 喚人行커늘 爭奈迷徒 | 戀荒草ㅎ는다) (남명
下, 39a)
나. 어린 사르문 목물라 죽다 호몬 어르미 오으로 이 {브리어늘 컨마론} 모
든 사르미 能히 먹디 아니홀시 목물라 주글시라 (남명下, 58b)

(17) 가. ㅎ다가 一定ㅎ야 잇다 {닐을딘덴 컨마론} 이슴 아니오 ㅎ다가 一定ㅎ야 업다 {닐을딘덴 컨마론} 업슴 아니니 ㅎ마 有無法이 아니를딘덴 ㅁ즈매 이 ㅁ스고(若定說有 ㄴ덴 爭奈非有 | 오 若定說無 ㄴ덴 爭奈非無 | 니 既非有無法인덴 畢竟에 是甚麼오) (금삼 2, 41b)

나. ㅎ다가 닐오더 이 用을 卽다 {홀딘덴 컨마론} 相 긋고 일흠 여회며 ㅎ다가 닐오더 이 用을 여회다 {홀딘덴 컨마론} 諸相을 막디 아니ㅎ니(若道卽此用인덴 爭奈絶相離名이며 若道離此用인덴 爭奈不礙諸相ㅎ니) (금삼 3, 32b)

(18) 凡에 견내뛰여 聖에 드로미 처엄브터 ㅁ초써 證ㅎ야 {가져오나니와 컨마론} 주근 ㅁ레 ㅁ모미니 ㅁ모로매 주근 ㅁ뎡 ㅁ소매 ㅁ모물 ㅁ 옮겨 ㅁ機를 ㅁ두르혀 이를 向ㅎ야 ㅁ와샤(超凡入聖호미 從頭ㅎ야 勤證將來어니와 爭奈死水에 沉잠潛이니 要須死水裏에 轉身ㅎ야 廻機ㅎ야 向此來ㅎ야샤) (금삼 2, 57a~b)

(19) 가. 비록 곧 ㅁ스ㅁ미며 곧 부데라 {닐어도 컨마론} ㅁ슴 아니며 부터 아니며 (設道卽心卽佛이라도 爭奈非心非佛이며) (금삼 4, 13b)

나. ㅎ다가 이 닐오미라 {ㅎ야도 컨마론} 돌물와 쇠ㅁ어니 엇던 겨르르윈 ㅁ디 이시며 엇던 겨르르윈 ㅁ운이 이시리오 ㅎ다가 닐오미 아니라 {ㅎ야도 컨마론} 光明을 ㅁ며 우르시며 能히 虛空을 ㅎㅎ시느니라(若道是說이라ㅎ야도 爭乃石馬鐵牛 | 어니 有甚閑情이며 有甚閑氣리오 若道不說이라ㅎ야도 爭乃放光哮吼ㅎ시며 解喝虛空ㅎ시느니라) (금삼 4, 38a)

(14가), (15), (16나)는 남명선사가 영가대사의 증도가에 대해 계송한 것으로 대응하는 구결문이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14나~라), (16)~(19)는 '컨마론'이 모두 구결문의 '-나 爭奈(乃)'에 대응되어 있는 것이다.

'컨마론'은 위의 예에서 보는 바처럼 몇몇 연결어미에만 뒤에서만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주의를 요한다.

(20) 가. ㅁ고져 {컨마론} 내 불씨 ㅁ宅 ㅁ地 靈祇로 子母를 擁護ㅎ야 安樂ㅎ야 利益을 得게 호니 (월석 21, 125a)

나. 窮子 | 스를 히 디내야 오라니 漸漸 ㅁ비를 親히 {컨마론} 손지 ㅁ門ㅁ겨 퇴 이쇼문 二乘敎를 브터 結을 그튼 後에 方等敎 | 큰 ㅁ法을 기리겨시닐 들 ㅁ좁고 비웃디 아니ㅎ며 저근 ㅁ法을 ㅁ것겨시닐 疑心 아니ㅎ니 이 ㅁ스ㅁ매 서르 體信호미라 (월석 13, 26a)

(20가)의 '먹고져 컨마론'은 얼핏 보면 (14)~(19)의 '컨마론'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을 (15~19)의 것과 같은 부류로 처리하기보다는 ‘-컨마른’의 용례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즉 ‘먹고져 컨마른’의 ‘컨마른’은 ‘흐컨마른’의 축약형으로 ‘흐-’는 동사구보문 동사인 것이다. (20나)의 ‘親히 컨마른’도 ‘친히’라는 부사 뒤에 ‘컨마른’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때의 ‘컨마른’도 ‘흐컨마른’의 축약형으로 ‘흐-’는 본동사인 것이다.

- (21) 가. 阿難이 슬오디 世間衆生은 일로 갓다 {컨마른} 나는 닐 正호디 닐 갓
 곤디 아니 몰호노이다(阿難이 슬호디 世間衆生은 以此로 爲倒컨마른 而我
 는 不知誰正誰倒호노이다) (능엄 2, 12a)
 나. 우릴 授記 주어 받드기 부터 드외리라 {컨마른} 우리 이 곁호 虛妄 授記
 를 쓰디 아니호리라(而與我等授記호야 當得作佛이라컨마른 我等이 不用如
 是虛妄授記호리라 (법화 6, 80a) (법화 6, 80b)
 다. 더를 혀 이룰 사기니 므르 몰로매 갓갑도다 {컨마른} 愚는 信解品을 그
 스기 보디(引彼釋此호니 殆不知宗이로다컨마른 而愚는 竊觀信解品호니
 (법화 1, 11a) (법화 1, 14b)

(21가~다)의 예들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요망된다. ‘마른’처럼 감탄의 종결어
 미에 ‘컨마른’이 후행한 예로 볼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흐컨마른’의 축약형이라
 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 때 ‘흐컨마른’의 ‘흐-’는 ‘니르-’, ‘(授記) 주-’, ‘사
 기-’의 대동사이다. 즉 (21가)와 (21나)는 각각 “阿難이 이르되 世間の 衆生은
 이것을 거꾸로 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누가 바로 되었는지 누가 거꾸로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와, “우리에게 授記를 주어 말씀하시되 받드기 부처가 될 것
 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 같은 허망한 授記를 쓰지 않겠다”의 의미를 가진다. (21
 다)도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나 (21가~나)와 같은 차원에서 설
 명할 수 있을 듯하다. 결국 ‘컨마른’은 《남명집언해》와 《금강삼성가해》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형태로 몇몇 연결어미 뒤에만 출현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
 릴 수 있겠다.⁶⁾

그런데 다음의 용례는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위태롭게 하는 특이한 것들이
 다.

6) ‘컨마른’은 16세기 이후의 자료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22) 가. 비록 {그러나 컨마른} 눈 알피어니 엇데호료(雖然恁麼 | 나 爭奈目前이 어니 何오) (금삼 2, 62b~63a)

나. 비록 色聲에 住호미 올티 몬다 호나 (色聲이 컨마른) 目前이어니 엇데 호료(雖然不應住於色聲이라호나 色聲이 爭奈目前이어니 何오) (금삼 2, 63a)

다. 혼 河 | 비록 논호디 몬호나 象과 물와 툃기와 (세히 컨마른) 다르니(一河 | 雖然不可分이나 象馬兔三이 爭奈異호니) (금삼 5, 19b)

(22)의 '컨마른'은 부사나 격조사 뒤에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2가)는 구결문을 볼 때 '컨마른'이 '그러나'라는 부사 뒤에 출현하는 예로 보기보다는 용언의 활용형 뒤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부사라면 구결문은 '然이나 爭奈(乃)' 정도로 쓰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마른'은 부사 '그러나'에 '컨마른'이 후행한 예가 아니라 '그러-'의 활용형인 '그러나' 뒤에 '컨마른'이 출현한 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22나)와 (22다)로 이들은 주격조사 뒤에 '컨마른'이 나타나는 정말로 특이한 예이다. 일반적인 쓰임에 따른다면 "비록 色聲에 住호미 올티 몬다 호나 컨마른 色聲이 目前이어니 엇데호료"나 "혼 河 | 비록 논호디 몬호나 컨마른 象과 물와 툃기와 세히 다르니"가 되어야 할 것들이다. 구결문을 달 때 일어난 잘못('爭奈(乃)'의 위치)이 그대로 언해문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컨마른'의 원래 용법이 접속부사적이어서 이러한 출현이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III.

이 절에서는 '마른', '-컨마른', '컨마른'이 가지는 용법 즉,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종결어미 뒤에 통합되는 '마른'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보자. '마른'은 기본적으로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⁷⁾ 허용(1975: 365)도 '마른'이 '뒤집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여 '마른'의 기본적인 의미를 양보로

7) 본고에서는 이환목(1981)에 따라 '의미상의 대립'을 대조로, '기대의 어긋남'을 양보로 하여 대조와 양보를 구분하였다.

보고 있는 셈이다.

- (23) 가. 나면 本來 잇느니 뉘 호오사 {업스리오마론} 엇데 背叛호야 드로매 제 일호며 밧 物에 제 迷커노(生而固有호니 誰獨且無리오마론 奈何自失於 背馳호며 自迷어 外物오 (법화 2, 224a) (법화 2, 226a)
 가. 나다가며 本來 잇느니 뉘 호오사 {업스리오} 엇더판디 뒤호로 돌요매 제 일호며 밧 物에 제 모러거노 (월석 13, 32a)
 나. 훗은 엇데 王의 得寵호요몰 호오사 코자 (아니호리잇고마론) 훗은 드로 니 지비 거지블 어려홀 두민 사르미 能을 보는다 호니(훗은 豈不欲權王之寵 愛哉리잇고마론 훗은 閨堂上兼女는 所以觀人能也리호니 (내훈 2, 18b) (내훈 2, 20b)
 다. 그되내 갓비사 {오도다마론} 舍利사 몰 어드리라 (석상 23, 53b)
 다. 그되내 머리셔 갓비 {오난마론} 如來사 舍利는 몰 나소리어다 (석상 23, 54a)
 라. 저그니 업시며 크니 업시 다 天地사 아룬 恩을 넘소오니 쇼히며 쥬이 뉘 갑스를 뿌디 {업스리오마론} 오직 뉘 만흔 恩이 브거우시고 터럭 만흔 허른 적소오니 (상원권선문)

(23)의 예들은 ‘마론’이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특히 (23다)의 ‘오도다마론’은 같은 문헌에서 바로 뒤를 이어 (23다’)처럼 ‘오난마론’으로도 나타나는 데 이 둘은 그 문장 구조가 유사해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오난마론’의 ‘-건마론’은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⁸⁾ 따라서 ‘오도다마론’도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 예처럼 양보의 의미를 가질 때 후행문에 ‘(-어)사……-리라’의 형식을 취해 당위성이 강하게 표현되는 문장이나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강하게 표출된 문장이 온다. (21가), (21나), (21라)의 예들은 선행문이 수사 의문인데, 후행문에서 이 수사 의문이 나타내는 강한 당위성이나 의도 혹은 의지가 충족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는 전체의 의미도 가져 전체적 양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마론’은 양보 외에 전체의 의미 기능도 가진다. 특히, (24나)는 “몇 번 눈과 서리가 萬木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허공에 서리고 軒檻에 솟아나 다

8) ‘-건마론’이 양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술.

시 파래졌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마론'이 전제로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소 양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양보적 전제라 할 수 있을 듯하다. 결국 '마론'이 양보로 쓰이는지 전제로 쓰이는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 (24) 가. 어의 나흔 헌 뵈적삼 니브니 劫火를 몇마 {디내야노마론} 사만 이 글호도다(著箇織生破布衫호니 氣經劫火호야노마론 長如此호도다) (남명上, 31a)
 나. 몇마 눈과 서리의 萬木을 떠러디게 호물 {보야노마론} 虛空에 서리며 軒檻에 소사나 가시야 퍼러호도다(幾見雪想이 溷萬木고마론 盤空聳檻호야 更青青호니라) (남명下, 72b)

다음으로 '-건마론'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기존의 논저 대부분에서는 양보를 '-건마론'의 기본 의미로 보고 있으나 우리는 전제를 기본 의미로, 대조와 양보를 전제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의미로 본다. 우선 '-건마론'의 기본 의미라 할 수 있는 전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건마론'이 전제의 의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예를 몇 개만 들면 다음과 같다.

- (25) 가. 一一히 모로매 觀名을 {牒홀디언마론} 이제 그리 할가 저허 每觀에 오직 各各 한 字를 드러 그 次第를 論호노니(一一須牒觀名이언마론 今恐文繁호야 每觀에 但各舉一字호야 以論其次호노니 (원下2-2, 13a)) (원下2-2, 15a)
 나. 聖에 이셔도 더오디 아니호며 凡에 이셔도 더디 {아니컨마론} 오직 量을 조차 應호야 나들 쓰르미라(在聖호야도 不增호며 處凡호야도 不減컨마론 但隨量應現耳라 (능엄 1, 96a) (능엄 1, 96b)
 다. 如來智는 菩薩見을 여회오 自然智는 證取를 여회여 능물 브터 아디 아니호니 通히 다몬 {一乘實智언마론} 오직 德用을 조차 달이 일쿨 쓰르미라 (월석 18, 17b)
 라. 普門으로 나토야 妙音에서 {나스시건마론} 實엔 두 聖人이 한 道理샤 서르 始作과 終滿에 드외실 쓰르미라 (석상 21, 20b)

(25가)는 “하나하나 모름지기 觀名을 牒해야 할 것인데, 이제 글이 번잡할가 하여 觀마다 각각 한 글자를 들어서 그 차례를 매기니”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건마론'의 용법이 전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의 의미가 양보의 의미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은 양보의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보아 “하나하나 모름지기 觀名을 牒해야 할 것이지만은 이제 글이 번잡할가 하여, 觀마다 각각 한 글자를 들어서 그 차례를 매기니”로 해석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전체의 의미는 (25나~라)처럼 후행문이 ‘오직’이라는 부사로 시작되고 서술어가 ‘쓰림’에 계사가 통합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전체의 의미는 같은 원전의 이번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6) 가. 여섯 물근 圓明의 本來入 功德現量이 이 {근건마룬} 오직 證호물 조출
쓰르미니(曰六湛圓明의 本所功德現量이 如是건마룬 但隨所證耳니 (법화 6, 27b~28a) (법화 6, 28b)

나. 六湛이 圓明호야 本來入功德의 現量이 이 {근호니} 오직 證호물 조출
쓰르미라 저근 羅漢이 小千을 보고 큰 羅漢이 大千을 보고 (월석 17, 58b)

위의 예는 ‘-건마룬’이 ‘-오니’로 달리 번역되는 것들인데 이 때 ‘-오니’는 전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건마룬’도 전체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건마룬’과 ‘-오니’로 달리 선택되는 것을 번역자들이 이들 문맥을 달리 파악한 것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건마룬’과 대체되어 쓰이는 연결어미가 앞에서 살펴본 ‘-건마룬’에 앞서는 연결어미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과) 그 대체가 거의 규칙적이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건마룬’과 ‘-오니’의 대체가 같은 의미-여기에서는 전체-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27) 가. 色等 五欲을 世俗이 보드랍고 이든 것만 {너기건마룬} 다 幻惑濁惡호야 業苦를 잘 니르완느니 實로 불 닐웁 ㄱ스미라 (월석 12, 41a~b)

나. 色等 五欲을 俗은 보드랍고 고은 것 {삼거늘} 부더는 멀뚱고 현 것 사 ㄱ스니 다 幻惑濁惡호야 能히 業苦를 니르와도물 爲호스니 實 불 닐위를 ㄱ스미니(色等五欲을 俗은 以爲歎美어늘 佛은 以爲顯弊호스니 爲皆幻惑濁惡호야 能發業苦니 實致火之具也니 (법화 2, 89a) (법화 2, 89a)

(28) 가. 本來眞實호야 거츠로미 업서 疑常호야 變티 {아니호건마룬} 호 念의 迷惑으로 곱도 受苦에 妄量으로 즈마 니르는 眞을 일호며 (월석 11, 89a)

나. 本來入 眞은 妄이 업서 열의여 던던호야 變티 {아니커늘} 호 念의 迷惑호물 브터 곱도 근호 受苦에 妄量으로 ㄱ마 닐은 眞을 일호며(本眞은 無妄

9) 이 점은 후술할 내용을 참조

호야 擬常不變키늘 由一念之迷호야 妄沈幻苦호야 而失其所謂眞호며 (법화 1, 108a) (법화 1, 109a)

(29) 가. 내 처엄 道場에 안자 세 날뵈스시를 스랑호요디 내 得흔 智慧는 微妙호야 (第一이언마른) 衆生이 諸根이 鈍호야 미혹호매 罽蹋호야 잇느니 이 런 사롬들홀 어드리 濟渡호려뇨 호다니 (석상 13, 57a~b)

나. 내 처엄 道場에 안자 나모 보며 쏘 두루 든니며 三七日中에 이 곁흔 이를 스랑호디 내 得흔 智慧 | 微妙 | {첫第一이어든} 衆生은 諸根이 鈍호야 迷惑 즐교미 눈 멀유매 着호엿느니 이 곁흔 等類를 엇데 어루 濟度호려뇨 호다니(我始坐道場호야 觀樹亦經行호며 於三七日中에 思惟如是事호디 我所得智慧 | 微妙 最第一이어든 衆生은 諸根이 鈍호야 着樂癡所盲이니 如斯之等類를 云何而可度 | 어뇨 호다니 (법화 1, 232b~233b) (법화 1, 233b)

위의 예는 이번역 자료 사이에서 '-건마른'과 '-거늘', '-거든'으로 달리 번역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대체도 '-건마른'이 전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건마른'이 '-오디'로 달리 번역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건마른'이 전체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30) 가. 窮子 | 스물 히 디내야 오라니 漸漸 아비를 親히 {건마른} 손지 門入겨 퇴 이쇼문 二乘教를 브터 結을 그른 後에 方等教 | 큰 法을 기리거시늘 들 좁고 비웃디 아니호며 저근 法을 짓거시늘 疑心 아니호니 이 므스매 서르 體信호미라 (월석 13, 26a)

나. 窮子 | 二十年 디나 오라거샤 漸漸 아리게 {親호디} 손지 門入겨 퇴 이 슈문 二乘教 브터 結 그른 後에 方等教 들즈오몰 가줄비니 큰 法을 기리샤 디 비웃디 아니호며 저근 法을 짓그샤디 疑心 아니호미 이 닐은 므스미 서르 體信호미라(窮子 | 過二十年호야 久漸親父호디 而猶住門側은 譬依二乘教호야 斷結之後에 聞方等教호니 揚大而不謗호며 折小而不疑호미 是謂心相體信也 | 라 (법화 2, 215b) (법화 2, 215b)

(31) 가. 衆生이 如來스 智慧 아니 두니 {업건마른} 아롬 어려우미 이 곁호몬 들 글 비호시 제 ㄴ론 전치라(衆生이 莫不有如來스 知慧언마른 而難解若此者는 塵習이 自障故也 | 라 (법화 3, 164b) (법화 3, 165a~b)

나. 衆生이 如來스 智慧 업스니 {업소디} 아롬 어려부미 이 곁호몬 塵習이 제 ㄴ리는 전치라 (월석 14, 56a)

다음은 '-건마른'이 가지는 대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2) 가. 生理를 분디 아니호니 本來 色이 (업건마른) 호마 感호야 모미 이니 色 업순디 아니라(不由生理호니 則本自無色이언마른 既感成質호니 非無色也)라 (능엄 7, 90a) (능엄 7, 90b)

나. 넷 科애 논호디 (아니호안마른) 이제 經을 마초째 논호노라(而舊科애 不分호안마른) 수에 按經호야 分之하노라 (능엄 9, 89b) (능엄 9, 90a)

다. 아래 즈조 (듣즈반마른) 즉자히 도로 니저 굿볼 뿌니니 (석상 6, 11a)

(32)의 예들은 선행문과 후행문이 반대의 내용 즉 의미상으로 대립하고 있어 대조의 의미가 비교적 확실한 경우이다. 특히 (32나)는 '옛 科에는 나누지 않았으나 이제 經을 고증하여 나눈다'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의 의미가 분명한 편이다. 이러한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건마른'이 통합된 문장의 후행문은 '그러나(然이나)'라는 부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3) 가. 이 教스 位次 | 別教스 五十二位 (곧건마른) 그러나 別은 位마다 서르 攝디 아니호고 圓은 位마다 서르 帝網珠 | 곧고 天攝호야 帝殿에 구슬 그 드리 우희 두피 잇느니 (월석 14, 71b~72a)

나. 가줄비건댄 아히 又 난 나래 諸根이 又조미 늬과 다르디 (아니건마른) 그러나 그 히미 充實티 묻호야 歲月을 해 디내야사 비르서 사름 드외듯 호니 라(比如孩子 | 初生之日에 諸根이 具足호미 與他無異컨마른 然其力이 未充호야 頗經歲月호야사 方始成人뵈호니라 (목우, 12a) (목우, 12b~13a)

다. 漸漸 本國向호몬 부터 教化 맛나스보물 因호야 能히 두르혀 (슬편마른) 그러나 又 向호고 다들디 묻호물 가줄비니라 (월석 13, 7a~b)

라. 집안헛 보빏 藏을 뵈오져 (커신마른) 그러나 머릴 모르며 아빌 버려(欲示宅中寶藏이언신마른 然이나 迷頭호며 捨父호야 (원序, 42a~44a) (원序, 43b~46a)

(33)의 예에서처럼 '-마른'이 출현하는 예들 중에서 상당수가 후행문의 시작에 역접의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가 있는데 이는 '-건마른'의 기능이 선행문과 후행문을 의미상으로 대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대조의 의미는 같은 원전의 이번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4) 가. 舍利弗야 더 부텃 時節은 모던 뉘 (아니언마른) 本願 전츠로 三乘法을 니르리라 (월석 12, 9a)

나. 舍利弗아 더 부터 난 저기 비록 惡世 (아니나) 本願사 전츠로 三乘法을 니르리라(舍利弗아 彼佛時節 | 雖非惡世나 以本願故로 說三乘法히리라 (법화 2, 34a~b) (법화 2, 34b~35a)

(35) 가. 이 디난 後에 므스매 서르 體信하야 나며 드로몰 어려비 {아니컨마른} 그러나 잇는 짜히 손지 밍 고대 잇더니 (월석 13, 25b~26a)

나. 이 디난 後에 므스매 서르 體信하야 들며 나미 어려움 (업스나) 그러나 잇는 된 손지 밍 고대 잇더니(過是已後에 心相體信하야 入出無難하나 然其所止는 猶在本處하더니 (법화 2, 215a) (법화 2, 215a)

위의 예는 《월인석보》에서 '-건마른'에 통합된 문장이 《법화경언해》의 대웅 부분에서 대조의 연결어미 '-으니'로 표현된 것들이다. 《법화경언해》에 쓰인 '-으니'가 대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35나)처럼 후행문이 '그러나'라는 부사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도 '-건마른'이 대조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대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36) 가. 이럴씨 受苦 얽미오몰 여회여 解脫을 (得하안마른) 그러나 이는 오직 조 고맛 法이라 足히 念홀 거시 아니라 (월석 13, 5a)

나. 일로브터 여러 가짓 受苦 디요몰 여회여 解脫을 (得하느니라 하니) 그러나 이는 오직 小法이라 足히 念티 몰히리라(由是로 瑠諸故縛하야 而得解脫이라하니 然이나 此는 特小法이라 不足念也 | 니라 (법화 2, 179b) (법화 2, 180b)

(37) 가. 나도 이 곧하야 成佛로 오미 無量 無邊 百千萬億 那由他 {阿僧祇劫이언 마른} 衆生 爲하는 전츠로 方便力으로 반드기 減度호리라 니르노니(我亦如是하야 成佛已來 | 無量無邊 百千萬億 那由他 阿僧祇劫이언마른 爲衆生故로 以方便力으로 言當減度 | 라 하노니 (법화 5, 159b) (법화 5, 159b)

나. 나도 또 이곧하야 成佛하안디 無量無邊 百千萬億 那由他 {阿僧祇劫이니} 衆生 爲하야 方便力으로 減度호려 날어도 또 能히 法다비 내 虛妄한 허물 니르리 업스리라 (월석 17, 22a~b)

(36)은 《월인석보》에서 '-건마른'에 통합된 문장이 《법화경언해》에서 '-으니'로 표현된 경우이고 (37)은 《법화경언해》에서 '-건마른'에 통합된 문장이 《월인석보》에서 '-으니'에 의해 표현된 경우이다. 이 때 '-으니'가 '전제'가 아닌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 이 점은 '-으니'의 후행문에 '그러나'라는 부사어가 쓰였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현희(1994: 65)는 '-으니'가 문맥

상황에 따라 역접의 의미를 보이기도 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건마론’은 전제와 대조의 의미 외에 양보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보의 의미도 전제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건마론’의 의미가 전제인지 대조인지 아니면 양보인지 파악하기가 불분명할 때가 대부분이다.

(38) 가. 五辛은 (菜屬이언마론) 오히려 머구미 못흐리니 이 허므를 혜언덴 倍筭호미 數 업스니(五辛은 菜屬이언마론 尙不可食이니 較斯過惡건덴 倍筭無算호니 (능엄 6, 98a) (능엄 6, 99b)

나. ㄹ라치사문 眞實스 理를 니르시니 理ㅣ 衆生의 므스미니 ㄹ라치사물 들 즈오면 제 어로 므스물 (보련마론) 숨가라굴 여희여사 能히 드를 알리라 (능엄 2, 23b)

다. ㅎ다가 ㄴ미 가비아이 놀아이 너교미 드외면 이 사르미 先世罪業이 惡道에 (떠리디리언마론) 今世에 ㄴ미 가비아이 놀아이 어길씨 先世罪業이 곧 消滅호야 반드기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得호리라(若爲人輕賤호면 是人의 先世罪業이 應墮惡道ㅣ언마론 以今世人輕賤故로 先世罪業이 卽爲消滅호야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호리라 (금강下, 98b~99a) (금강下, 99a)

(38)의 ‘-건마론’은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예들이다. (38가)의 경우, 후행문에 ‘오히려’라는 부사가 쓰인 것에서도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양보의 의미는 (38나)와 (38다)처럼 ‘-건마론’에 선어말어미 ‘-리-’가 통합된 ‘-련마론’이 쓰일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듯하다. 그리고 ‘-건마론’이 양보의 의미를 가질 때 후행문으로 ‘오히려……-리니’, ‘-어사……-리라’, ‘반드기……-리라’ 등 당위성이 강하게 표현되는 문장이나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강하게 표출된 문장이 온다.

‘-건마론’이 가지는 양보 역시 동일 원전의 이변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가. 神力이 至極 크시다 {술오련마론} 經入 德을 能히 다 니르디 못흐샤문 如來스 一切 深妙 功德이 다 이 經에 모드샤 니르 다오디 佛을 轉전라(則 神力이 可謂至大어신마론 而不能說盡經德者는 如來스 一切深妙功德이 盡萃此經호샤 不可勝窮故也) 라 (법화 6, 107a~b) (법화 6, 107b)

나. 神力이 至極 크시다 {닐움디어늘} 能히 經入 德을 다 못 니르샤문 如來스 一切 深妙호신 功德이 이 經에 다 모다 어루 다 못 니르릴씨니라 (월석 18, 10b)

(40) 가. 오늘 法華 得_하야사 처엄 아소오디 般若時에 _하마 오로 맞디고져 {_하야 신마른} 오직 저근 法 즐겨 제 迷惑_하씨니 _하다가 내 큰 法 즐기던엔 오로 맞디샤미 오라시리랏다(今得法華_하야사 始知般若之時에 已欲全付|어신 마른 但以樂小自迷_하씨니 若我|樂大_하던덴 則全付|久矣시리랏다 (법화 2, 231b~232a) (법화 2, 232a)

나. 이제 法華 得_하야사 般若人 時節에 불씨 오로 맞디고져 {_하시던들} 처엄 아소보니 오직 저근 法을 즐겨 제 迷惑_하디니 _하다가 큰 法을 즐기던엔 오로 맞디샤미 오라니라 (월석 13, 36a~b)

(41) 가. 부터 滅度_하신 後를 더르샤던 聖人의 버으로미 더 머리 信티 아니_하리 {잇건마른} 그러나 또 어루 得度因緣을 지스릴씨 _하다가 나던 부터를 맞나 수오면 이 法中에 곧 決斷_하야 아로몰 得_하리로다(除佛滅後는 去聖이 遼遠_하야 容有不信_컨마른 然이나 亦可作得度因緣故로 若遇餘佛_하수오면 於此法中에 便得決了|로다 (법화 1, 194a) (법화 1, 194a)

나. 부터 滅度_하신 後를 더루던 聖人 업거신디 머리 갈씨 信티 아니_하리도 {이시려니와} 그러나 또 어루 得度因緣을 지스릴씨 _하다가 다른 부터를 맞나면 이 法中에 決斷_하야 스뵈 아로몰 得_하리라 _하시니라 (월석 11, 128b)

(39)~(41)은 이번역 자료에서 '-건마른'이 '-거늘', '-던들', '-거니와' 등으로 대체되어 쓰이는 예인데 이들은 양보의 의미로 파악될 때가 많다. (39)는 선행문이 강한 당위성을 표현하는 경우로 '-건마른'이 1차적으로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문맥에 따라서는 대조의 의미로도 파악된다. (40)은 '-건마른'이 '-던들'에 대응되어 있는 예이다. 정재영(1993)은 '-_나들'에 대해 “선행절에서 전제된 명제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예상)되는 결과가 그 기대에 어긋날 때 사용되는 접속어미”로 규정한 바 있는데 '-던들'도 그러한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던들'은 (40')처럼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때문에 '-건마른'이 '-던들'과 대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40') 가. 켜 後에 부여 大千이 업스니 아래브터 제 {미엿던들} 처엄 信호라(覺後에 空空_하야 無大千_하니 始信從前自拘縛호라) (남명上, 12b)

나. _하룻 아츠리 家鄉人 길홀 불와사 깊 가온디 日月 {기던들} 비르서 기던들 비르서 아도다(一朝에 踏著家鄉路_하야사 始覺途中에 日月長_하도다) (금삼 3, 17a)

마지막으로 몇몇 연결어미 뒤에만 나타나는 '컨마른'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하자. '-컨마론'처럼 '컨마론'도 전제, 대조, 양보의 의미 기능을 모두 가진다. 이 점은 '컨마론'이 앞서는 연결어미가 '-으나', '-으니', '-어도', '-거/어늘', '-올딘댄', '-거/어니와' 등임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바이다. 이들 연결어미들은 대부분의 논저에서 양보법이나 구속법으로 분류되어 온 연결어미들이었다. 결국 '컨마론'은 이들 연결어미가 가지는 의미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⁰⁾

전제는 '컨마론'이 '-으니', '-올딘댄'에 후행할 때 뚜렷이 드러난다.

- (42) 가. 발 아래라 호몬 잇는 디 머디 {아니홀시니 컨마론} 아디 몰나 호몬 罪性
이 本來 空한 고맷 妙旨를 아디 몰홀시라 {남명下, 60b}
나. 호다가 널오더 이 用을 卽다 {홀딘댄 컨마론} 卮 굿고 일홈 여회며 호다
가 널오더 이 用을 여회다 {홀딘댄 컨마론} 諸相을 막디 아니호니{若道卽
此用인댄 爭奈絶相離名이며 若道離此用인댄 爭奈不礙諸相호니} {금삼 3,
32b}

특히 (42나)의 '컨마론'에 선행하는 '-올딘댄'은 가정적 전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재영(1993)은 “-올덴'의 의미 기능은 선행절의 명제 또는 발화 내용을 추정하여 발화 전제하거나 또는 화자의 의도 의지가 담긴 담화 전제적 표현”이며 이러한 의미 기능도 넓은 의미에서는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바 있는데 '-올딘댄'도 바로 그러한 담화 전제적 표현, 즉 가정적 전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컨마론'은 대조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연결어미 뒤에도 나타나 대조의 의미를 강화시켜 준다. 즉 대조의 대표적인 연결어미라 할 수 있는 '-으나' 뒤에 쉽게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 (43) 가. 定이라 니르고져 {호나 컨마론} 비취요미 어줄티 아니호고 戀라 니르고
져 {호나 컨마론} 괴외호야 뭐디 아니호니 方과 모과를 一定티 어려울식 아
라우히 悠悠호야 어들 고디 업다 호시니라 {남명上, 45a~b}
나. 다르디 아니타 니르고져 호나 컨마론 다르며 호나히 아니라 니르고져 호
나 컨마론 호니호오{欲言非異나 爭奈異며 欲言非--이나 爭奈--오} {금삼

10) 허웅(1975: 366)은 '컨마론'의 기능을 “별 다른 뜻을 더함이 없이”라 하여 군더더기 정도로 보았다.

5, 20b)

'컨마론'은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연결어미 뒤에도 출현한다.

(44) 가. 비록 곧 므슴미며 곧 부떼라 (닐어도 컨마론) 므슴 아니며 부터 아니며 (設道卽心卽佛이라도 爭奈非心非佛이며) (금삼 4, 13b)

나. 凡에 건내뵈여 쩌에 드러미 처섬부터 마초뵈 證하야 (가져오나니와 컨마론) 주근 브레 즈모미니 모로매 주근 몹 소배 모물 움겨 機를 두르혀 이물 向하야 와샤(超凡入聖호미 從頭하야 勸證將來어니와 爭奈死水에 沉潛이니 要須死水裏에 轉身하야 廻機하야 向此來하야사) (금삼 2, 57a~b)

다. 어린 사르민 목달라 죽다 호민 어르미 오으로 이 {프리어늘 컨마론} 모든 사르미 能히 먹디 아니홀시 목달라 주글시라 (남명下, 58b)

이러한 '컨마론'의 기능에 관해 허웅(1975: 365~367)와 허웅(1992: 52~53)은 “주로 마디 사이에 들어가서, 별다른 뜻을 더함이, 그 연결에 여유를 주게” 하는 ‘군더더기’로 본 바 있다. 이는 ‘컨마론’에 선행하는 연결어미만으로도 전제, 대조, 양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군더더기로 보기보다 전제, 대조, 양보의 연결어미 뒤에 덧붙여 그 의미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컨마론’ 본래의 용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만일 그러하다면 ‘마론’, ‘-건마론’, ‘컨마론’은 그 의미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론’, ‘-건마론’, ‘컨마론’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면서-결국 문법범주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겠지만- 거의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거의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표현한 것은 이들 세 형태가 완전히 똑같이 전제, 대조,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론’은 세 의미 기능 중에서 ‘양보’가 기본적인 의미이고, ‘-건마론’은 ‘전제’가 기본적인 의미인 것이다.

‘마론’, ‘-건마론’, ‘컨마론’은 형태상으로 얼핏 봐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만일 이들 사이에 합리적인 어떤 유연성이 있음이 밝혀진다면 이들의 용법이 거의 같은 이유가 자연스레 설명되리라 여겨진다. 서정섭(1986)은 ‘-건마론’에서 ‘건’이 탈락되어 ‘마론’이 생성되어 나왔다고 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건/언’의 연결어미적인 쓰임이 확인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설명은 ‘마론’이 ‘-건/언’이라는 연결어미 뒤에 통합되어 쓰이는 보조사로 분석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컨마론'과 '마론'의 형태상의 유연성은 설명하기 힘들어 보인다.

반면 '-컨마론'과 '컨마론'의 형태적인 유연성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ㅎ-'의 'ㄷ'는 쉽게 생략할 수 있다. 그 결과 앞의 (20~21)이나 다음 (45)와 (46)의 예에서처럼 'ㅎ-'가 동사구보문 동사, 대동사, 본동사나 합성어의 후행 어기로 쓰일 때 쉽게 '컨마론'이라는 형태가 생성되어 나온다.

- (45) 가. 阿難이 술오더 世間衆生은 일로 갖ᄃ다 {컨마론} 나는 다투 正호디 다투 갖
 곤디 아디 몰호노이다(阿難이 글호디 世間衆生은 以此로 爲倒컨마론 而我
 는 不知誰正誰倒호노이다) (능엄 2, 12a)
 나. 먹고져 (컨마론) 내 불씨 舍宅 土地 靈紙로 子母를 擁護호야 安樂호야
 利益을 得게 호니 (월석 21, 125a)
- (46) 아니컨마론(월석 13, 25b), 通컨마론(법화 3, 44b), 倍컨마론(월석 17, 13a),
 괴외컨마론(원상 2-3, 29a), 圓滿컨마론(능엄 4, 54a), 定컨마론(육법중,
 15a), 勝컨마론(금삼 4, 32a), 快컨마론(금삼 3, 53b), 敗亡컨마론(삼강忠,
 24), 만컨마론(월석 4, 30a)

이러한 많은 용례들이 《금강경삼가해》, 《남명집언해》의 언해자로 하여금 '컨마론'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구결문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구결문에서 구결을 달 때 서술어가 체언 상당어이면 계사의 활용형을, 용언 상당어이면 'ㅎ-'의 활용형을 쓰는데 이 때 'ㅎ-'의 활용형의 하나로 '컨마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화경언해》에서 대표적인 구결문 하나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7) 淨名에 曰호디 說法이 不有호며 亦不無컨마론 以因緣故로 諸法이 生호며
 無호호며 無造호며 無受者컨마론 善惡之業은 亦不亡이라 호니 正證之人
 이 固無已也 | 나 然이나 善惡之業은 豈有已之可記며 豈無已之可忘哉리
 오 (법화 3, 54b~55a)

그리고 '마론'은 종결어미에만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연결어미 뒤에 '마론'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형태가 필요했다면 어느 것이 선택되었을까? 선택의 제1순위는 아마도 '컨마론'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된 것이 연결어미 뒤에 나타나는 '컨마론'이라 보는 것이다. 이는 '컨마론'

이 《남명집언해》와 《금강경삼가해》 두 문헌에 한정되어 쓰이는 점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IV.

'마론', '-건마론', '컨마론'과 관련해 우리의 주목을 끄는 또 하나의 연결어미는 '디비'이다.¹¹⁾ 이 '-디비'는 19세기에 형성된 '-지마는/-지만은'의 형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현희(1991)은 '-건마론'이 '-건마는'으로 형태가 변화하여 '-디비'에서 변화한 '-지'와 혼효되어 '-지마는'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 여부는 '디비'의 공식적인 형태 통합 제약과 의미 기능의 파악으로부터 점검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

우선 15세기 국어의 '디비'의 형태 통합 제약, 특히 선어말어미 통합 제약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 (48) 가. 오직 不生滅은 이 如來藏이니 두 쁘디 ㅎ마 ㄴ호야 梨耶 | 各別한 體 體 업슬씨 中에 있디 아니타 ㅎ니 이는 ㅎ나 아닌 쁘들 자바 {니르디비} 和 슴디 아니타 ㅎ야 니르논디 아니라 (월석 11, 59a)
 나. 이는 오직 精한 行으로 잖간 이 ㄴ호물 {득디위} 聖證이 아니라(斯但精 行으로 暫得如是디위 非爲聖證이라) (능엄 9, 54a)
 다. 니르샤디 ㄴ난 매는 바르 虛空애 大鵬을 {티디위} 엇데 울 미뵈 ㅈ기울 도라보리오 ㅎ니 (남명上, 11a)
- (49) 가. 박구라(薄拘羅) | 자내쑤 {어디디비} ㄴ ㄱ르초물 아니홀씨 세간(世間) 에 유익(有益)한 주리 업스니라 (석상 24, 40a)
 나. ㅎ다가 반드기 어드우물 ㄴ단덴 이는 오직 ㄴ고미 {업디위} 엇데 보미 업스리오(若必見暗인덴 此는 但無明이디위 云何無見이리오 (능엄 2, 72a) (능엄 2, 72a~b)
- (50) 가. 드로몬 오직 耳形의 物色을 ㅅ거 소릿 드트레 觸홀 {ㅅ르미디위} 耳識 이 아니니 이런드르 니르샤디 엇데 耳形을 일후물 識界라 ㅎ리오 ㅎ시니라 (聞은 特耳形의 雜物色 ㅎ야 觸聲塵而已디위 非耳識也 | ㄴ 故로 曰云何耳 形을 名爲識界리오 ㅎ시니라 (능엄 3, 40a) (능엄 3, 40b)

11) 15세기 국어에서 '디비'는 '디위, 디외, 디웨' 등으로 나타난다.

나. 或이 닐오더 八萬四千은 곧 法을 表할 (뿌니디위) ्ह 모매 어디 두료
 ्ह느니(或曰八萬四千은 特表法耳디위 一身에 何所施乎 | 리오호느니 (능
 업 6, 40a) (능업 6, 41b)

다. 이는 法界行 닻고뎨 브트샤 大因의 내은 (거시디위) 첫 ㅁ슴뎨 能히 드
 루 디 아니라(此는 由修法界行호샤 大因의 所生이디위 非初心의 能入也
 | 라) (능업 6, 59b) (능업 6, 60a~b)

라. 소리를 因호야 分別 이쇼뎨 (緣心이디위) ㅁ슴뎨 眞이 아니라(因聲而有
 分別者는 緣心耳디위 非心之眞也 | 라) (능업 2, 22b)

마. 이는 能히 欲 (저구미디위) 能히 ㅁ슴 업디 ㅁ호호니라(此는 能少欲이디
 위 未能無心也 | 라) (능업 8, 137b)

위의 예들에서처럼 ‘-디비’에 통합되는 서술어에는 통사범주(품사)상의 제약
 이 없다. 동사, 형용사, 계사가 다 가능하다. ‘-디비’는 보통 서술어 어간에 통합
 하는 것이 보통이나 선어말어미 중에서 ‘-시-’, ‘-습-’과의 통합도 가능하다.

(51) 가. 舍利弗야 如來 다뎨 ्ह 佛乘으로 衆生 爲호야 (說法호시디비) 나타나
 乘이 들히며 세히 업스니라 (월석 11, 113a)

나. 世尊이 實호 道를 (니르시디위) 波旬은 이 이리 업도소이다(世尊이 說
 實道호시디위 波旬은 無此事 | 로소이다 (법화 2, 25b)) (법화 2, 26a)

(52) 가. 이런 양줄 보니 부터 보스본 듯홀씨 부터를 爲호스바 (禮數호습디비) 네
 그에 호는 禮數 | 아니라 (월석 4, 36a)

나. 나도 이 고히야 부터의 (절호습디비) 네 그에 호는 저리 아니라 (월석 4,
 36b)

‘-디비’는 기본 의미로 양보를 가지는 것 같다.

(53) 가. 길오 멀며 브즈러니 受苦호뎨 갓근 거츠로뎨 브터 (니디비) 엇뎨 道에
 브트리오 (월석 14, 79b)

나. 傅察이 닐오더 죽거든 (죽디비) 어되뎨 ्ह가짓 臣下 | 절을 주리 이시리
 오 (삼강忠, 20)

다. 나는 士大夫스 썩리오 僕射스 겨지비로니 오늘 (죽디비) 현마 도즈기
 겨집 아니 드외요리라 (삼강烈, 13)

‘-디비’가 양보의 의미를 가질 때는 후행문에 수사 의문이나 그와 같은 표현
 효과를 가지는 문장이 온다. 즉 후행문에 당위성이 강하게 표현되는 문장이거나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강하게 표출된 문장이 온다. (53가)와 (53나)는 후행문이 수사 의문인 경우이고, (53다)는 문 전체가 “오늘 죽을지언정 차마 도적의 아내 는 되지 않겠다”는 의미로 모두 후행문이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강하게 표출된 문장이다.

‘-디비’가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은 동일 원전의 이번역 자료의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4) 가. 正法像法이 各各 스물 劫 後에 업수믄 衆生의 機 感을 조차 盛하며 衰 홀 {쓰르미디비} 佛身法性은 本來 그 스시에 더으며 듀미 업스니라 (월석 13, 61b~62a)

나. 正像法이 各各 二十劫 後에사 滅호믄 衆生機의 感을 조차사 盛하며 衰 홀 {쓰르미언명} 부뎡 몸 法性은 本來 그 스시에 더으며 損호미 업스니라(正像之法이 各二十劫而後에사 滅者는 隨衆生機感호샤 而隆替시건명 佛身法性은 固無加損於其間호시니라 (법화 3, 58b) (법화 3, 58b~59a)

위에서 보는 것처럼 ‘-디비’가 양보의 대표적 연결어미인 ‘-건/언명’으로 대체 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디비’는 일반적으로 양보의 의미로 쓰이지만 전체나 대조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55) 가. 이제 이 아히 다 내 아드리라 스랑호미 기운 黨이 업스니 내 이 굴흔 七 寶大車를 두더 그 數 | 그지업스니 반드기 혼가짓 믇스믄로 各各 {주디위} 굴히요미 울티 몰도다(今此幼童이 皆是吾子 | 라 愛無偏黨호니 我有如是 七補大車호디 其數 | 無量호니 應當等心으로 各各與之디위 不宜差別이로 다 (법화 2, 76a) (법화 2, 76a~b)

나. 行者 行者아 나는 法을 爲호야 (오디위) 오솔 爲호야 오디 아니호이다 (行者行者아 我는 爲法來디위 不爲衣來호이다 (육법上, 35b) (육법上, 36a)

(55가)는 “반드시 똑같은 마음으로 각각 주어야 하는데 가려서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55나)는 “나는 법을 위하여 오는 것이지 옷을 위하여 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각각 전체와 대조의 의미로 쓰였으나 이들은 모두 양보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는 듯이 여겨진다. 즉 양보적 전체, 양보적 대조라 해 두는 편이 좋을 듯하다. 이 중에서 전체의 의미는 동일 원전의 이번역 자료의 비교에서 확인된다.

- (56) 가. 舍利弗아 如來 다몬 혼 佛乘으로 衆生 爲호야 (說法호시디비) 너나몬 乘이 들히며 세히 업스니라 (월석 11, 113a)
 가. 여래(如來) 다몬 혼 불승(佛乘)으로 중생(衆生) 위호야 (설법(說法)호시디비) 너나몬 승(乘)이 들히며 세히 업스니라 (석상 13, 49b)
 나. 如來 | 오직 --佛乘으로 전초로 衆生 爲호야 (說法호스니) 너나몬 乘이 들히어나 세히어나 업스니라(如來 | 但以 佛乘故로 爲衆生說法호스니 無有餘乘이 若 二若三호니라 (법화 1, 181b) (법화 1, 182a)

즉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디비’가 《법화경언해》의 대응 부분에서 전체의 ‘-으니’와 대체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비’가 현대국어의 ‘-지마는’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국어의 ‘-지마는’에 통합되는 서술어에는 통사범주(품사)상의 제약이 없다. 동사, 형용사, 계사가 다 가능하다. 그리고 ‘-지마는’은 서술어 어간에 직접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와의 통합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마는’의 의미 기능은 기본적으로 양보이다.

- (57) 가. {늠었지마는} 마음은 짚다.
 나. 사고 {싫지마는} 돈이 없다.
 다. 자랑할 일도 {아니지마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57가)의 예는 “늠었을지언정 마음은 짚다”는 의미로 양보이다. 그리고 (57나)와 (57다)에서는 전체와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 전체와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양보와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고 양보적 전체와 양보적 대조의 의미로 파악된다. 결국 현대국어의 ‘-지마는’는 형태 통합 제약이나 의미 기능으로 볼 때 15세기국어의 ‘-디비’와 완전히 일치하는 셈이다.¹²⁾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마는’의 생성은 ‘-디비(>지)’와 ‘-건마론(>건마는>건마는)’의 혼효라고 보기보다 ‘-디비(>지)’라는 연결어미에 보조사 ‘마론’이 통합되어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를 듯하다. 19세기 국어 당시에도 ‘마는(<마는<마론)’은 15세기 국어에서처럼 보조사적으로 쓰여 주로 양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에 ‘마론’이 통합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

12) 중세국어의 ‘-습-’은 현대국어로 오면서 소멸하였기 때문에 형태 통합으로 볼 때 완전히 일치한다.

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에는 '디비(>디위, 디외, 디웨)'가 '-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음절 축약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연하자면 현대 국어에서 '마른'은 보조사적인 쓰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접속 부사적인 쓰임까지 보이고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컨마른'이 가지는 용법을 어느 정도 계승한 듯하다.

(58) 가.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惻隱한 마음이 앞을 가리군 하였다. {마는} 도리켜 생각컨대 나무처럼 幸福한 生物은 다시 없을 듯하다.(윤동주:<하늘과 바람과별과>, 175)

나. 안해라고 요새이 돈 이 원이 급시로 필요함을 모르는 배도 아니었다. {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로동으로나 돈 이 원이란 감히 땅땀도 못해 볼 형편이었다.(김유정:<소낙비>, 25)

V. 맺음말

본고에서는 15세기 국어의 '마른', '-건마른', '컨마른'에 살펴보았다. 특히 이들 세 형태들이 어떠한 환경에 출현하는가를 정밀하게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마른'은 보통 설명 의문(수사 의문)의 종결어미 뒤인 '-리오/료', '-뇨' 뒤에 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탄의 종결어미와 판정 의문의 종결어미 뒤에도 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른'은 종결어미 뒤에 통합하는 보조사인 셈이다. '-건마른'은 불연속형태로 선어말어미 '-시-, -리-, -습-' 등에 통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이다. 반면 '컨마른'은 보통 '-나, -으니, 거/어늘, -올던덴, -거/어니와'와 같은 몇몇 한정된 연결어미 뒤에만 출현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세 형태는 상호 배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세 형태들의 의미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마른'은 주로 양보적인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대조와 전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건마른'은 기본 의미가 전제이고 부차적인 의미로 이에서 파생된 대조와 양보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컨마른'도 앞의 연결어미에 기대어 전제, 대조, 양보의 의미를 강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세 형태들은 전제, 대조, 양보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셈이다.

이들 세 형태는 형태적으로도 어떤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고에서는 '컨마론'은 '호컨마론'이라는 '호-'의 활용형에서 생성되어 나온 것으로 보았다. 이에 는 구결문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는 19세기에 형성된 '-지마는'과 관련해 '-디비'의 형태 통합 제약과 의미 기능도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15세기 국어의 '-디비'는 현대 국어의 '-지마는'과 형태 통합 제약과 의미 기능 면에서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마는'은 '-지(<디비>)'와 '-건마는(<컨마론>)'의 혼효형이 아니라 연결어미 '-지'에 양보의 의미를 강화 시켜 주기 위해 '마론'이 통합된 것이라는 추정도 해 보았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0), <중세어의 어미활용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국어학회.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김송원(1988), <15세기 중기국어의 접속월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 김완진(1980), 《항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진형(1995), <중세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목록 설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간.
- 서정섭(1986), <중세국어 대립·양보의 접속어미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 안병희(1965), <후기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학술지》 6, 건국대.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현희(1991), <국어문법사 기술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국어사 논의
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현희(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환묵(1981), <양보문의 의미>, 《어학교육》 12, 전남대 어학연구소
- 정재영(1993), <중세국어 의존명사 '드'의 어미화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
대 박사논문.
- 허 용(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허 용(1992),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